

#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..

## | BCG 접종 |

- 우형 결핵균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사람의 몸에 인공감염시킴으로써 결핵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BCG 접종입니다.
- 소아결핵은 영아나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, BCG 접종은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.

## | 면역력이 약해지면... |

- 결핵은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자기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심한피로, 스트레스, 무리한 체중감량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결핵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면역력이 감소하는 질병이 있거나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| 결핵환자가 가족에 있는 경우 |

- 환자가 발견된 경우 다른 가족도 이미 감염이 되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6세 미만의 어린이는(결핵검사를 받도록)예방화학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#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

## 주소\_

122-70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 
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 
Tel : 02) 380-2903~2905, 2913~2914  
Fax : 02) 380-1418

보건복지가족부  
Ministry for Health,  
Welfare and Family Affairs

질병관리본부  
Korea Centers for  
Disease Control &  
Prevention

대한결핵협회  
Korean  
National  
Tuberculosis  
Association

질병관리본부\_ <http://cdc.go.kr>  
결핵바로알기\_ <http://tbfree.cdc.go.kr>  
대한결핵협회\_ <http://www.knta.or.kr>

Division of HIV and TB control

# 결핵에서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



보건복지가족부



질병관리본부  
에이즈·결핵관리팀



대한결핵협회  
결핵연구원

#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현황



- 2007년에 새로 발견되어 보고 된 결핵환자 수는 34,710명으로, 인구 10만 명당 71.6명이고, 2006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,733명입니다.
- 우리나라 결핵 발생자 및 사망자 수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

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자 수		인구 10만명 당 결핵 사망자 수	
한국 88명	OECD 평균 15.6명	한국 10명	OECD 평균 1.9명

[자료원 : WHO REPORT 2008]

- 우리나라의 결핵은 노인뿐만 아니라 **20~30대 젊은 층**에 결핵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. 이는 결핵 발생이 많은 국가의 특징적인 환자 분포의 모습으로 젊은 층은 노인결핵환자에 비해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, 감염 후 당장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

# 결핵에 대하여 바로 알기



## | 결핵이란? |

- 결핵균의 전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, 뇌, 척수, 임파선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폐와 기관지, 후두의 결핵만이 전염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기의 결핵은 전염성이 없습니다.

## | 결핵의 증상은? |

- 1 기침이나 객혈
- 2 객담
- 3 무력감, 식욕부진, 체중감소
- 4 발열
- 5 호흡곤란
- 6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음

이상의 증상들, 특히 2~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.

## | 결핵의 전염여부는? |

- 몸속에 결핵균이 활발하게 증식(활동성)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기침, 재채기를 통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건강한 다른 사람의 폐 속 깊은 폐포에 도착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.
- 감염이 되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, 이들 중 약 5~10%만 발병하게 됩니다.



- 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일으키게 됩니다.

※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, 의류, 침구, 책 및 가구 등과 같은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으므로 따로 식사를 하거나 소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## | 결핵의 진단과 치료 |

- 진단 : 객담검사(현미경검사 및 배양검사)와 흉부 방사선검사(X-선검사)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.
- 치료
  - 초회 결핵치료는 3~4가지의 약을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하게 됩니다.
  - 처음 결핵이 발병한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97% 이상 완치가 가능하며, 특히 기침, 발열, 무력감 등의 증상은 약 복용 2주 후면 거의 없어집니다.
  -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,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내성균 발현을 막고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절대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.

## TB 도우미 사업이란?

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결핵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보건소 TB 도우미가 내원동력, 복약동력을 도와드리는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.